

1월 8일(월) / 애1-2장

▶**내용요약:**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고난을 당하게 될 유다 백성들을 위해 지은 5편의 슬픈 노래이다. 1장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그 고통을 탄식한다. 국가의 멸망으로 인해 비참한 상태에 처한 누구도 돕지 않는 예루살렘의 현실을 그대로 묘사한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으로 묘사된다. 2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에서 시작된 것임을 밝힌다. 하나님은 더 이상 유다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적이 되어 그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신다.

▶**질문:**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 주를 향하여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2장)

▶**생각하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한 번 분노하면 얼마나 무서운 본인지를 예레미야가 잘 표현한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맹렬한 진노(2:3)나 불과 같은 진노로 묘사한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랑의 이면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로 살자!**

1월 11일(목) / 겔5-8장

▶**내용요약:** 5장은 에스겔이 깎은 머리털과 수염의 상징을 통해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예언한다. 6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고발하며 심판하신다. 7장은 이스라엘의 종말이 임박했음을 예언한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대로 갚을 것임을 공표하신다. 8장은 예루살렘의 우상숭배의 모습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한다. 결국 자기 백성이 구원을 호소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겠다고 하신다.

▶**질문:**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중에 에워싸인 자는 무엇으로 죽는다고 하는가?(6장)

▶**생각하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고발하면서 자신이 질투할 뿐만 아니라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7:9)고 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때로 다스리실 것이라고 하신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질투하고 때리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질투하고 때리시기 전에 먼저 사랑의 하나님에게 나아가자!

1월 14일(주일) / 겔17-20장

▶**내용요약:** 17장은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바벨론이 유다를 속국으로 삼아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운 사실을 알려준다. 문제는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인도를 무시하고 바벨론을 배반하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는 사실이다. 이 비유는 결국 시드기야의 죽음과 왕국의 멸망을 예언한다. 18장은 신포도에 대한 속담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이 심판하는 원리를 알려주는데 개인이 범죄한대로 그 자신에게 보응하심

1월 9일(화) / 애3-5장

▶**내용요약:** 3장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자신의 고난과 절망으로 생각한다. 이를 통해 여호와께 돌아갈 것을 호소한다. 4장은 바벨론에게 포위된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황을 슬퍼하고 두려워한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이 고생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해준다. 5장은 예루살렘의 남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회복의 날을 소망한다.

▶**질문:** 팔호를 채우세요. “사람이 여호와와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 )이 좋다.”(3장)

▶**생각하기:** 예레미야는 극심한 고통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3:40)고 외친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자기 점검(self-examination)**을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미덕으로 삼았다. 예레미야도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자고 호소한다. 시간 가는대로 마음 가는대로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들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살피고 돌아보자!**

1월 12일(금) / 겔9-12장

▶**내용요약:** 9장에서 하나님이 분노로 인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도록 명령하시고 이를 사자가 준행한다. 10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신비한 모습을 묘사한다. 11장은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한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12장은 에스겔이 포로의 행장을 꾸러서 어깨에 메고 나가게 하심으로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운명임을 상징적으로 말씀한다.

▶**질문:**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도록 명령할 때 어디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9장)

▶**생각하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단지 말씀으로만 이스라엘의 운명을 예언하지 않으시고 직접 에스겔이 행동으로 상징적인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신다. 하나님이 무지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려는 **시청각 교육**을 하고 계신 것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 메시지를 직접 보면서도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

을 알려주며 회개를 재촉한다. 19장은 멸망당할 유다 왕들을 위한 애가로 사로잡힌 사자와 불탄 포도나무의 비유로 그들의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20장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그들의 가증함과 패역함에 대해 기록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배신으로 인해 무서운 재앙이 선포된다.

▶**질문:** 팔호를 채우세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 ) 살지니라”(18장)

1월 10일(수) / 겔1-4장

▶**내용요약:**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예언하는데 많은 환상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다. 1장에서는 에스겔이 네 생물의 환상을 보면서 그 모습을 묘사한다. 2장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한다. 3장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음을 확인하신다. 4장은 예루살렘을 토판에 그리고 에워싸게 하심으로 포위된 예루살렘의 고난을 상징으로 말씀하신다.

▶**질문:** 에스겔이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곳은 갈대아 땅 어느 강가에서인가?(1장)

▶**생각하기:**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면서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3:5)라고 하신다. 말이 같은 동족에게 보내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다. 오히려 말이 안 통하는 이방인들은 들었을지 모르나 이스라엘은 듣지 않는다고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말이 통하는 백성일까?**

1월 13일(토) / 겔13-16장

▶**내용요약:** 13장은 거짓 선지자들의 죄가 무엇인지와 그들의 운명에 대해 기록한다. 하나님은 이들의 거짓 목사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신다. 14장은 하나님이 우상숭배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하신다. 15장은 쓸모없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뻔함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한다. 16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예루살렘을 음녀로 비유하면서 음행에 대한 형벌을 예언한다.

▶**질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리겠다고 하신 4가지 중한 벌은 무엇들인가?(14장)

▶**생각하기:** 하나님은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지만 음행을 일삼는 음녀가 되어버린 여인의 비유를 통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의 **영적 간음**을 지적한다. 피투성이로 버려진 아이를 살려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시켰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화려함을 믿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모습으로 영적 간음죄를 지적한다.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신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18장 32절에서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무섭게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